

치 사

남한산성에 청량한 기운이 가득합니다. 가을 산색은 고즈넉한 도량과 더할 수 없이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결실까지 돌아보게 하는 이러한 때에 장경사가 호국 의승수록재를 봉행하는 것은 향기로운 마음으로 더욱 젖어들게 합니다.

이토록 뜻 깊은 자리를 여러
사부대중과 함께하게 되어
반가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수록재는 우리 문화 중에서
세계에 자랑할 만한 대표적인
무형문화유산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유주, 무주의
모든 중생들이 행복해지는
불교의식으로 천 년 동안이나
전승되어온 장엄하고 성대한
의례입니다.

이 중에서도 국가와 민족에 대한 종교적 책무가 무엇인지 일깨우신, 수많은 스님들을 기리는 의승수록재는 참으로 각별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더욱이 그 명맥이 80여년 이상 끊기어 오다가 그 거룩한 원형을 찾아가고 있는 장경사의 노력은, 청량산 가득한 가을색과 더불어 장엄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라의 평온과 민중의 행복을
위한 숭고함을 오늘날 되새기는
일은, 후손의 당연한 일이며
너무도 고마운 일입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전통문화
복원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남경필 도지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지 경우스님
에게 치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올해는 남한산성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크나큰 경사를 맞기도 하였습
니다.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한국불교의
공지입니다.

이러한 선대의 유산이 지금
우리 앞에서 감화를 주는 것은,
나라가 어지럽고 민중이 힘들
때마다 의연하게 일어섰던
스님들의 헌신이 민족의 삶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나라를

위하겠다는 서원을 찾은 선열을
기리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현시대를 헤쳐가는
지혜를 얻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은 선대의 공덕
위에 있습니다. 현재의 삶에서
이러한 정신을 이어가는 책무는
후손으로서 너무도 당연합니다.

고귀한 호국정신을 현시대에
실천하는 일은 그리 멀리 있는
것도 아니며, 우리의 삶에서

다양하게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것을 나누고
이웃과 사회에 봉사하는 것
또한, 바로 나라를 위하는
것이자 국민 모두의 행복에
이르는 길이기도 합니다.

풍요로움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장경사의 노력과 작은

변화들이 종단과 한국불교,
나아가 우리 사회에 희망을
심는 알찬 씨앗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맑은 마음으로 함께한 오늘의
정성이 후손들에게 밝은 미래를
이끌어 주기를 바라며, 한사람
한사람이 마음을 내어 모두가
행복한 자리에 있기를 축원합
니다. 감사합니다.